

# ‘단순 생리통’ 착각...평상시 검진으로 조기발견 중요



최지현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 자궁근종

흔한 양성 종양...최근 젊은층 증가세  
발생 위치·크기 따라 증상 매우 다양  
원인 명확하지 않고 예방법도 없어  
“추적관찰·약물·수술 등 맞춤형 치료”

“생리통이 좀 심해진 것 같긴 했는데, 종양이 생겼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최근 진료실을 찾은 30대 직장인 환자는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제법 큰 크기의 자궁근종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약 20만명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 2024년에는 62만8천명을 넘어섰다. 불과 10년 새 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통계가 보여주듯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주로 중년 여성들에게 나타나던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앞선 사례처럼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여성 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 계획이 있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평상시에도 부인과 검진을 시행하는 등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지현 조선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통해 자궁근종의 증상과 치료법, 예방법 등을 알아본다.

### ◇명확한 원인 미상...호르몬 등 복합 작용

자궁근종은 자궁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 중 하나지만, 아직까지 종양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의학계에서는 자궁 평활근을 이루는 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유전적 변화와 함께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다. 초경이 빠르거나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가족력이나 비만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최근에는 에스트로겐 대사 문제나 환경호르몬 노출 역시 종양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증상·환자 상태 따라 맞춤형 치료 핵심

자궁근종은 발생 위치나 크기에 따라 증상이



최지현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은 뚜렷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해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커지거나 위치가 좋지 않으면 생리량과, 극심한 생리통, 골반 통증 등의 이상 증세가 동반된다. 근종이 방광을 누르면 소변이 찻아지는 증상이 생기고, 장을 누르면 변비나 복부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는 환자의 연령과 임신 계획, 증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한 이상이 없고 크기가 작다면 당장 치료를 서두르

기보다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진행한다. 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함이 심하다면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호르몬 주사나 약물을 통해 근종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조절하는 내과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근종만을 제거하거나 자궁 전체를 적용하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한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최근에는 흉터와 통증을 최소화하는 로봇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하이푸 시술이

나 자궁근종 색전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으나,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제한될 수 있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정기검진·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게

자궁근종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산부인과를 방문해 골반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정기 검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와 달리 생리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고, 골반 쪽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피로감이나 생리불순으로 여겨 방치하면 심한 빈혈이나 만성 골반통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체지방은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비만을 피하는 것이 자궁근종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증상의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습관이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다.

/정리=기수희기자

## 질병관리청,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점검

광주시 관계자 등과 조선대병원 방문  
추진 현황 살피고 지원 방안 등 논의  
내년 상반기 운영 목표...“방역 거점”

질병관리청과 광주시가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상황을 점검했다.

5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최홍석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과 광주시 역학조사팀 관계자들이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호남권 감염병 대응 핵심 거점으로 조성 중인 감염병전문병원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에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국장 등은 최남규 조선대병원장 등과 함께 공사 현황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 ▲장비 비용 및 개원 후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꼼꼼게 논의했다.

최홍석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일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조속한 완공과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남규 조선대병원장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호남권은 물론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의료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 광주기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복지부 지정 공모...“응급 대응 충실”

광주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 추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5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 치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광주기독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년 연속 1등급 ▲심혈관중재시술 및 뇌졸중 시술 인증기관 ▲전문 중환자실과 전용 병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 간호인력 배치 및 집중 치료를 위한 독립된 치료 환경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뇌와 심장 혈관을 동시에 정밀 촬영할 수 있는 영상장비와 MRI-CT 2시간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순환기내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구성

된 전문진료팀이 협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혈전제거술, 색전술 등 고난도 중재시술을 포함한 즉각적인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 대응 건수 증가를 통해 지역 내 심혈관 응급 대응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급성기 치료는 물론 재활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까지 연계한 지속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19구급대, 인근 중소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발생 시 최적의 이송 경로를 확보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승욱 병원장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우리 병원의 전문 치료 역량과 협진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도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대응 체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